

# 길 따라 강 따라

- 글쓴이 : 강마을 친구들
- 엮은이 : 길잡이샘
- 펴낸날 : 2013년 5월 24일
- 펴낸곳 : 남한산초등학교

□ 누리사랑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athfinder239>

□ 전자우편 [nice239@hanmail.net](mailto:nice239@hanmail.net)



## 강 / 마 / 을 / 에 / 서 / 보 / 내 / 는 / 소 / 식

몽촌토성에 다녀왔어요. 비록 몽촌토성을 전부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모처럼 나들이를 즐겼답니다. 백제 관련 유물 전시관도 둘러보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백제시대 사람들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달 체험학습은 어디로 떠날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 길쌈입니다~ 고려와 관련된 좋은 장소, 어디 없을까요?^^

### ★ 5월 20일 월요일

- ✓ 김건희 - 날씨가 흐리네.
- ✓ 이준호 - 석가탄신일때 우리 이모가 돌아가셔서 토요일에 장례식 갔다.
- ✓ 김태영 - 나이스 나 오늘 글쓰기 다했는데 이젠 고난이도 영어 외워야 됐는데. 아 어떻게하지? 큰일났다.
- ✓ 이태형 - 음 혀 때문에 정말 괴롭다. 혀바늘 때문에 자꾸 자꾸 물을 먹게 된다. 지금이면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
- ✓ 정민영 - 6/1일날 축구경기 6/2일날 농구경기 바쁘다.
- ✓ 최은수 - 첫 시간은 토론이군... 하하하
- ✓ 김민승 - 졸려...
- ✓ 문휘원 - 오늘 나는 안과에 간다.
- ✓ 조민혁 - 강원도에서 황어를 잡았다.
- ✓ 신채원 - 포스터 만들자!
- ✓ 이 호 - 빨리 일요일이 되었으면.
- ✓ 국하늘 - 벌써 5월 20일이다! 세월 빨리 간다.
- ✓ 윤재희 - 숙제 중...
- ✓ 박혜려 - 신채원 짝
- ✓ 한승진 - 어제 크루즈 패밀리를 봤다.
- ✓ 김민성 - 무얼 쓰지? (썼다.)
- ✓ 김하평 - 더 쉬고 싶어.
- ✓ 광상민 - 오늘 성민이가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 왔다.
- ✓ 조다은 - 오늘 숙제하느라 피곤하다.
- ✓ 윤지석 - 소금, 쌀, 콩, 클립, 톱밥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발견했다.
- ✓ 전연수 - 오늘 졸리다.
- ✓ 박원정 - 오늘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

### ★ 5월 23일 목요일

- ✓ 김건희 - 내가 암행어사다.
- ✓ 이준호 - 어제 김태영 생일
- ✓ 김태영 - 아 왜 21일은 안 썼지? 아 맞다. 산으로 숲산책 갔다. 아 영어, 수학 숙제 큰일났다. 아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네.
- ✓ 이태형 - 혀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답답해. 정말 답답해. 혀 때문에 미치겠어~
- ✓ 정민영 -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존재감이 없이 살거다.
- ✓ 전성민 - 떨린다.
- ✓ 최은수 - 첫 시간은? 미술
- ✓ 김민승 - 오늘 과학인데 미술로 간다.
- ✓ 문휘원 - 오늘 나는 농구를 할 것이다.
- ✓ 신동민 - 오늘 오랜만에 고누를 했다.

- ✓ 조민혁 - 어제 칼싸움을 했다.
- ✓ 이태운 - 생각하는 셈 안 풀었다.
- ✓ 신채원 - 1블록 미술!
- ✓ 이 호 - 힘들고 짜증난다.
- ✓ 국하늘 - 할게 없어.
- ✓ 윤재희 - 오늘이 미술!
- ✓ 이예진 - 즐거운 미술!
- ✓ 박혜려 - 미스터 스미스랑 떠들었다.
- ✓ 한승진 - 어제 S보드가 왔다.
- ✓ 김민성 - 어제 일찍 잤다.
- ✓ 김하평 - 어제는 반모임이었다. 솔빈이, 은수랑 놀았다.
- ✓ 광상민 - 오늘 숙제를 안 했다. 빨리 해야겠다.
- ✓ 조다은 - 하암. 하품이 난다.
- ✓ 윤지석 - 피곤하다.
- ✓ 전연수 - 오늘도 졸리다.
- ✓ 박원정 - 오늘 난 수학숙제를 못하겠다.

### ★ 5월 24일 금요일

- ✓ 김건희 - 오늘 암행어사 밝히네.
- ✓ 이준호 - 글똥누기 시간.
- ✓ 김태영 - 아 뭐지 짜증난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짜증나게 하는건가. 다른 애랑 나랑 대우가 다른데. 아오진짜.
- ✓ 이태형 - 혀이혀이혀이혀 뽑아버리고 싶어 정말. 이젠 정말 못참겠어 이런 젼장 말할 혀 주제에. 화가 난다.
- ✓ 정민영 - 기타수업 재미있을 것 같다.
- ✓ 최은수 - 오늘 기타를 가져왔다. 엄청 무겁다.
- ✓ 김민승 - 드디어 오늘 기타를 배운다.
- ✓ 문휘원 - 오늘은 온작품 장수만세를 읽는 날.
- ✓ 신동민 - 오늘 캠핑을 간다.
- ✓ 조민혁 - 빨리 집에 가고 싶다.
- ✓ 이태운 - 장수만세 재미있다.
- ✓ 신채원 - 기타를 가져왔다.
- ✓ 이 호 - 졸리지 않다.
- ✓ 국하늘 - 기타 배운다! 예~
- ✓ 윤재희 - 기타 배우는 날. 신난다.
- ✓ 이예진 - 김민승이 버스 뒷자리에다가 커피우유를 버렸다.
- ✓ 박혜려 - 기타를 가지고 왔다.
- ✓ 한승진 - 내가 암행어사면 좋겠다.
- ✓ 김민성 - 애들이 다 기타를 가져왔다.
- ✓ 김하평 - 쌍륙을 이겼다.
- ✓ 광상민 - 오늘 기타를 한다. 기타를 안 가지고 왔다.
- ✓ 조다은 - 배아프다.
- ✓ 윤지석 - 다 싫다.
- ✓ 전연수 - 오늘은 암행어사를 밝힌다.
- ✓ 박원정 - 오늘은 기타동아리 날이다.

★ 조다운

목요일 날 하늘이가 준호네 집 근처에서(개울가) 놀자고 해서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학교에 갔더니 하늘이가 준호네 이모가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할지 생각하다 하늘이네 가게 됐다. 그래서 하늘이네에서 놀다가 떡볶이를 먹고 돌아왔다. (집으로)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 광상민

<구름>

구름은 왜 만져지지 않을까?  
구름이 솜이어서  
구름위에 올라가고 싶다.

구름은 요술쟁이다.  
모양이 변한다.  
신기하다.

★ 김민승

나는 오늘 영화 크루스페밀리를 보고 애슐리를 가고 자전거를 탔다. 나는 2인용 자전거를 엄마랑 탔다. 내가 운전하고 엄마는 옆에 앉아서 갔다. 30분 동안 탔다. 내가 엄마를 내리라고 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엄마를 태우고 갔다. 또 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집에 갔다. 오늘 영화도 보고 애슐리도 가고 자전거도 타서 재미있었다.

★ 한승진

나는 오늘 휘원이와 세이브존에 가서 크루즈 패밀리를 봤다. 크루즈 패밀리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원시인 크루즈 패밀리가 동굴에서 살다가 딸 이프가 가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간다. 나는 이 영화에 신기한 동물이 많이 나와서 좋다. 특히 식인 새들은 무서웠고 이빨이 아주 긴 호랑이가 귀여웠다. 난 이 영화가 신기했다.

★ 문휘원

오늘 나는 승진이와 영화를 보았다. 무슨 영화냐 하면 '크루즈 패밀리'란 영화다. 그 영화는 크루즈라는 원시인 종족이 있었다. 예전엔 친구들도 있었으나, 모두 밧히거나 모기에 끌려가거나 맹수에게 먹히거나 하였다. 살아남은 부족이 바로 크루즈 부족(패밀리)이었다. 크루즈 부족은 밤이

되기 전에 사냥을 마친다. 밤은 맹수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소년과 소녀에 의해(지진이 날거라는), 부족들은 생각이란걸 하게 된다. 여기에 에바적인게, 아무리 영화라지만 어떻게 구름 위를 걸을 수 있나...- . - 어쨌거나, 크루즈 부족은 (전원)모두 살아 남는다.

★ 전연수

오늘 은준이가 아빠한테 떼쳐서 89900원짜리 레고를 샀다. 거기다가 덤으로 20000원 정도 되는 운동화를 샀다. 레고의 종류는 스타OO 이었다. 혼냈더니 은준이 왈 "원래는 더 비싼거 살거였어." 지난번에도 키O, 곤충의OO 을 샀다. 그런데도 또 사다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차에서 안 내림. (자진 약속 지켰나?) 은준이 또 왈 "좋은 점이 있어. 나 볶음밥 먹었어." (그래..맛있었냐?) 다음번에는 안 사면 좋겠고 나도 사주면 좋겠다. (정확하게 상품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괄호는 저의 생각입니다.)

★ 신동민

목요일 날 포천으로 캠핑을 갔다. 70km를 가는데도 차가 밀려서 2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도착하니 밤이었고 자리는 자갈바닥에다 경사진 구조이고 오른쪽 길과 아랫길이 있다. 또 폭이 좁고 좌우로 긴 곳이다. 놀이터는 가깝지만 화장실과 새면대가 멀어서 그다지 좋은 여건은 아니었고 전망대는 새면대쪽 방향이라 힘들었다. 전망대를 올라갔는데 다윈이란 놈이 계속 손잡아 달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레일 설매가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송어잡기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송어는 한 마리도 없고 미꾸라지처럼 생긴 놈만 있었다. 게다가 물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인데다 파리때가 들끓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놀만했고, 재밌었다. 근데 3번이나 넘어지는 바람에 샤워할 때 고생 좀 했다. 온수같은 건 그랬다 쳐도 시설은 비닐하우스로 되어있어 틈새로 바깥이 다 보이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다 손가락으로 치면 구멍이 뚫리니 샤워실시설이 빵점이다. 거기다 탈의실에서 옷을 못에다 걸어 두어야 하니 좁고 사용자수도 제한되어있다. 전망대만 제외하면 꽤찮은 여행이었다.

★ 이에진

나는 오늘아침에 할머니 집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쳤다. 그리고 몇 시간 후 2층에 사는 아이랑 같이 텃밭을 갈다. 텃밭에서 나오는데 2층 아주머니랑 같이 유치원에 갔다. 가보니 그냥 하우스다. 유치원에 갔다가 합치박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전 텃밭링을 하다가 밥 먹고 쉬었다가 텃밭링을 5시까지 했다. 집에 와보니 아빠 친구들랑 엄

마랑 같이 바베큐를 먹고 또 배드민턴을 치고, 씻고 잤다. 정말로 재미있었다.

### ★ 김하평

오늘 나는 우리 가족(아빠 빼고) 은수네 가족이랑 거제도에 갔다. 우리는 외도에 가려고 했는데 외도에 가는 배가 끝났다고 했다.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에 갔다. 나는 맨 처음에 몽돌 해수욕장에서 예쁘게 생긴 돌을 골랐다. 몽돌 해수욕장이 왜 몽돌인게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돌로 탑 쌓기를 했다. 나는 13개까지 세웠는데 최고 기록이었다. 그러자 민성이가 짜증났는지 15개까지 세웠다. 그러자 나도 짜증나 가지고 더 높이 쌓으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그 다음은 발을 물에 적시고 돌 마사지 하기를 했다. 난 바닷가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막 물을 적시고 놀았다. 바지가 반바지여서 다행이도 젖지 않았다. 난 그렇게 적시고 돌에 앉아서 돌을 다리 위에 내려놨다. 그 느낌이 웬지 모르게 좋았다. 또... 물수제비를 했다. 은수는 3번이나 튀겼는데 난 1번 했다. 그러다 난 4번까지 했는데 그건 돌을 맞고 튕겨서 그런 거였다. 아~ 짜증나. 나도 좀 잘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엔 마지막으로 몽돌을 파보는 것이었다. 난 좀 있으면 흙이 나오겠지 했지만 흙이 안 나왔다. 좀 나오면 좋을텐데. 근데 신기한게 거기에 물이 묻은 돌이 나온거다. 와~ 난 너무 신기했다. 난 다음번에 거제도에는 좀 커서 친구들과 가고 싶다. 그때 갈 때는 외도를 가고 몽돌 해수욕장도 들리고 싶다.

### ★ 문휘원

나는 요즘 거의 매일 농구만 한다. 날씨도 따뜻하고 농구가 즐겁기 때문이다. 나는 농구 중에서 중거리 슛을 잘한다. 나의 실력은 농구를 하는 애들 중에 못하는 정도다. 그렇지만 농구가 재미있다. 난 자유투를 잘한다. 자유투는 2번 연속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쏠을 늘 수 있는 거다. 단 늘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

### ★ 최은수

어제 거제도로 왔다. 오는데만 9시간 정도 걸렸다. 거의 휴게소 여행을 한 것 같다. 9시간을 달려서 해안선 횡집, 민박집에 왔다. 3층이었는데 집이 이런데 돈을 내고 산다면 이상한 사람이다. 민박집 앞에 나가 보니까 낚시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민박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몽돌해수욕장에 갔다. 차가 엄청 막혔다. 어찌 어찌해서 겨우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몽돌해수욕장에 있는 돌은 가지고 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말 해변이다~ 돌이다~ 몽돌해수욕장에 갔다가 통영(충무)에 갔다. 거기에서 거북선 안에 들어갔다. 거북선 안에는 진짜 거북선처럼 잘 꾸며놨다. 거북선을 보고 옆에 있는 해저터널에 들어갔다.

양옆이 우리가 투명이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다. 해저터널은 별거 없다. 그냥 터널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왔다. 별건 아닌데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통영(충무)에서 꿀빵하고 충무김밥을 먹었다. 그리고 또 다시 민박집을 오는데 1시간 28분 걸렸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의미있고 재미있었던 하루였다.

### ★ 김태영

나는 민혁이랑 한준이랑 낚시를 했다. 송사리 2마리를 잡았다.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뗏은 내가 설치한 게 아니다. 민혁이가 설치한거다. 나는 상관없다. 어항(좁은 어항말고)이라고 계곡 어딘가에 돌을 쌓아 놓았다. 하지만 내가 물고기들이 나갈까봐 돌담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 아빠랑 옷놀이를 했다. 1번은 졌는데 울컥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1번 다시 이겨서 화도 풀리고 울컥한 것도 풀렸다. 나는 지면 화가 나고 울컥하는 습관이랄까? 그런 버릇?같은 게 있어서 그걸 고치면 돼겠다. 일요일 밤에 있던 일이다. 토요일에 있었던 일도 쓰고 싶지만 다음에 써야겠다.

### ★ 윤지석

그저께 166-1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다가 동대문에 도착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이층버스를 탔다. 2층버스는 계단이 좀 경사가 가파르지만 재밌고도 즐거웠다. 먼저 처음엔 남대문시장에 갔다. 거긴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엄마는 이곳이 옷이 싸고 좋아서 날 자꾸 옷가게로 데려갔다. 난 정말 지겨웠다. 그러다가 맛있는 평양물냉면을 먹었다. 그 다음엔 인사동을 갔다. 인사동에서는 약간 한가한 느낌이었다. 마침 거기에 쫄면 터키의 돈두르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어떤 장구 치는 걸 보다가 찻집에서 팔빙수와 아주 신 석류레몬차를 마셨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광장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구경하다가 앞에 있는 개울가 있는 공원에 갔다. 거기에서 노래를 듣다가 전과 김밥을 먹고 식혜를 먹으면서 집에 왔다.(2013.5.20)

### ★ 이호

어제 축구부 끝나고 나는 승진이랑 놀았다. 스케이트 보드로 앉아서 행궁 입구에서 앉아서 약 10초 가량 정도 걸려 내려 왔는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빨리 내려왔다. 그러다가 솔빈이가 왔다. 솔빈이도 나랑 같은 데서 탔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들쭉시며 탔다. 그리고 솔빈이랑 헤어진 후, 나무에서 놀다가 비가 와서 계속 거의 2시간 30분 가량이나 올라가 있었다. 그러다가 승진이 우산을 찾아서 집으로 가다가 엄마를 만나 우산을 받고 아빠가 계시는 순흥회관으로 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왔다.

## ★ 박혜려

석가탄신일 날 우리 집과 유림이네(유치원 친구)랑 산정호수로 갔다. 맨 처음 포천에 있는 허브아이랜드에 갔다. 거기는 꽃과 허브가 많았다. 온통 허브 냄새에 머리가 아팠다. 거기서 허브 비누를 사고 구경한 후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도 허브만 들어있었다. 우린 허브 냄새에 취해서 나와 오늘 밤에 지널 펜션에 왔다. 그곳에 짐을 나누고 한탄강 래프팅 하러갔다. 2시간 동안 노를 젓는 거였다. 나는 키가 조금 작다고 어린이 취급을 받았다. 반면 유림이는 키가 커서 어른 취급을 받았다. 나는 뒤에 앉았고 강사 선생님이 나를 막 놀리셨다. 강가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이겼는데 꿀밤을 빼리고... 짜증났다. 한탄강 안에 있는 물은 농약물이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은 계속 끝까지 올라오고 위험한 곳이 조금씩 생긴다. 우리 아빠랑 유림이 아빠가 가위바위보 했는데 우리가 졌다. 배에 두라인이 있었다. 유림이 아빠줄 우리 아빠줄. 난 유림이 아빠줄이었는데 아빠가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계곡을 먼저 내려와 덕분에 옷이 다 젖었다. 그리고 숙소에 와 쉬다가 이동갈비 원조 김미자 할머니네 집에 갔다. 원조여서 사람이 어머어마 많았다. 김미자 할머니는 어디선가 갈비를 만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 옆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는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다.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안쪽은 안보고 밖만 보고 있었다. 우리도 안쪽이어서 대접은 많이 못 받았다. 다음날 아침 컵라면을 먹고 산정호수를 한 바퀴 돌았다. 오리배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우리 집으로 와서 어른들끼리 말하고 우린 내방에서 놀았다. 요번년에는 석가탄신일 말고 평일에는 쉬는 날이 별로 없다고 한다. 재미있었다.

p,s:다시 달려 보니 평일에 쉬는 날 많음.

## ★ 김진희

그제 야구장을 갔다. 처음엔 지성이형, 호범이형 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호범이형이 못 간다고 해서 나랑 지성이형 이랑 같이 갔다. 경기는 5시에 있는데 1시에 갔다. 왜냐하면 빨리 가면 표도 빨리 끊고, 선수들 싸인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빨리 갔지만 선수들의 싸인을 못 받았다. 그래도 선수들이 먹는 이온음료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비록 홈런을 2개나 치고 졌지만 재미있었다.

##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10가지!

온 작품 글쓰기

### ★ 문휘원

- ①직업을 얻을 거시다. 이유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 ②내 마음대로 놀기
- ③내가 원하는 바다에 있는 배 집에 60칸 짜리 차고가 있어야 한다.
- ④차 좋은 것으로 60대 사기.
- ⑤내 마음대로 쉬기.
- ⑥집 6개 사기.
- ⑦레고 조립
- ⑧애완동물과 살기
- ⑨만화책 사기
- ⑩아이언맨 슈트를 얻는다.

### ★ 이태형

- ①레고
- ②피규어
- ③먹고 싶은 것 먹기
- ④해외 여행
- ⑤에어쇼
- ⑥친구랑 PC방에서 게임하기
- ⑦캐리비안 가기
- ⑧에버랜드 가기
- ⑨영화보기(보고싶은 것)
- ⑩동생,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신나게 놀고 죽기

### ★ 윤지석

- ①보물찾기 만화책 다~ 모으기
- ②롤러코스터 한 번 타보기
- ③책 1권이라도 지어보기
- ④사과푸딩, 뿌띠첼을 많이 먹기
- ⑤신기한 것 많이 발견해내기
- ⑥일본, 터키, 태국, 프랑스, 미국 등등 세계여행 가기
- ⑦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멋지게 수업 내용 정리
- ⑧엄마, 아빠한테 1번이라도 좋은 일 해드리기
- ⑨책 많이 읽기
- ⑩부모님과 할 수 있을 만큼 행복 누리기

### ★ 이호

- ①영생하기
- ②USJ 다시 가기
- ③싫어하는 애 죽이기
- ④아베총리 죽이기

- ⑤차사기
- ⑥운전하기
- ⑦아이언맨 슈트 갖기
- ⑧미국가기
- ⑨해리포터 테마파크 가기
- ⑩게임하기

**★ 조민혁**

- ①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집나가자는 것
- ②놀기
- ③가출
- ④친구랑 에버랜드 가기
- ⑤차사기
- ⑥운전하기
- ⑦TV에 나오기
- ⑧학교 이틀 안나오기
- ⑨동남아프리카 가기
- ⑩싫어하는 애 때리기

**★ 박혜려**

- ①돈 마음대로 쓰기
- ②놀이공원 가기
- ③핸드폰 마음껏 하기
- ④TV도 많이 보고
- ⑤컴퓨터도 마음껏 하기
- ⑥결혼해서 아기 낳아보기
- ⑦대학교 졸업하기
- ⑧인피니트 다 만나보기
- ⑨레고 갖고 놀아보기
- ⑩다시 태어나기

**★ 김민성**

- ①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기
- ②꿈 이루기
- ③죽고 환생하기
- ④게임 다 해보기
- ⑤세계여행 가기
- ⑥여자 애들 때리기
- ⑦아이언맨 슈트 입어보기
- ⑧친구들이랑 여행가기
- ⑨레고 필요한 것 사기
- ⑩제인이 때려보기

**★ 김태영**

- ①신나게 놀기
- ②컴퓨터 신나게 하기

- ③영화보기
- ④레고 가지고 놀기
- ⑤싸움 실컷 하기
- ⑥명하게 있기
- ⑦생각하기
- ⑧까불고 나보고 나대지 말라는 애들 때리기
- ⑨자동차 사기
- ⑩유언장 남기기

**★ 신동민**

- ①유럽여행
- ②사업
- ③아이언맨 슈트
- ④의사
- ⑤세계여행
- ⑥해저탐험
- ⑦북극
- ⑧남극
- ⑨우주여행
- ⑩블로장생

**★ 이정솔빈**

- ①국하늘 때리기
- ②어른되기
- ③장수만세 독후감 안쓰기
- ④살로 돌아가기
- ⑤암행어사 또 되기
- ⑥크루즈 타기
- ⑦캠핑하기
- ⑧영생하기
- ⑨레고 다 모으기
- ⑩내 꿈 이루기

**★ 전성민**

- ①어른이 되는 것
- ②부자가 되는 것
- ③우주에 가 보는 것
- ④태양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
- ⑤죽을 때까지 나이를 안 먹는 것
- ⑥과거와 미래에 가 보는 것
- ⑦늙어도 노망이 안 드는 것
- ⑧레고를 모두 갖는 것

**★ 이예진**

- ①결혼해 보고 싶다.
- ②아프리카 후원 해주고 싶다.

- ③남자 친구에게 요리 해주고 싶다.
- ④여자 애들과 추억 만들고 싶다.
- ⑤장래희망 이루고 싶다.
- ⑥집 사기
- ⑦쇼핑 하고 싶다.
- ⑧홀로 여행하기
- ⑨쌍둥이 낳기
- ⑩자동차 사기

### ★ 신채원

- ①여자애들과 배낭여행 하기
- ②내가 원하는 직업 되기
- ③좋은 대학 가기
- ④예쁜 별장 지어서 적어도 1달에 1번은 가기
- ⑤좋은 집에서 살기
- ⑥스마트폰 사기
- ⑦책 완전 많이 읽기
- ⑧남자친구랑 여행가기
- ⑨TV보기
- ⑩친구들과 많이 놀기

### ★ 국하늘

- ①여자친구들과 배낭여행
- ②결혼하고 애 낳기
- ③남자친구랑 배낭여행
- ④꿈 이루기
- ⑤좋은 중,고,대학교 가기
- ⑥진한색으로 염색하기
- ⑦큰집에 큰마당에 살기

### ★ 윤재희

- ①패션 디자이너 되기
- ②친구들이랑 해외여행
- ③내 이상형이랑 연애하기
- ④대학교 때 MT 가기
- ⑤통장에 있는 돈 다 쓰기
- ⑥집 사기
- ⑦패션디자인과 가기
- ⑧미술대회에서 상 받기
- ⑨방학동안 숙제 안 하고 먹고 자고 놀기
- ⑩중고등학교때 올100 맞기

### ★ 최은수

- ①꿈 이루기(내 꿈은 비밀)
- ②배낭여행 가보기
- ③결혼하기

- ④나, 엄마, 아빠한테 손주 보여주기
- ⑤중고등학교 때 베프 정하기
- ⑥꼬박꼬박 저축해서 엄마, 아빠 차 사드리기(집도)
- ⑦대학교 때 원하는 과에 들어가기
- ⑧엄마, 아빠 좋은 집 사드리기
- ⑨내 별장 만들기
- ⑩엄마, 아빠 별장 사드리기

### ★ 곽상민

- ①팽귤 키우는 것
- ②레고 사는 것
- ③내가 천재가 되는 것
- ④노는 것
- ⑤별 만져 보는 것
- ⑥내가 전교 1등이 된다.
- ⑦1억 갖는 것
- ⑧금갓기
- ⑨은갓기
- ⑩다이아몬드 갖기

### ★ 이준호

- ①친구들이랑 배낭여행
- ②카부토가 되어 보는 것
- ③격투기 겨루기
- ④대학 가는 것
- ⑤레고 10통 사는 것
- ⑥여자애들 빼고 1박2일
- ⑦영생
- ⑧나라 하나 세워보는 것
- ⑨타임머신 만들기
- ⑩차 사기

### ★ 박원정

- ①세계여행을 해보고 싶다.
- ②배낭여행 가는 것
- ③선생님한테 못했던 반항하기
- ④내가 사고싶은 것 모든 것 사기
- ⑤뽕 뜯기
- ⑥날라리 짓 해보기
- ⑦엄마랑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기
- ⑧친구들한테 안녕이라고 말하기
- ⑨잘있으라고 하기
- ⑩핸드폰 부셔서 새것 사기

### ★ 정민영

- ①농구선수 되어보기

- ②엄마, 아빠, 형 얼굴보기
- ③비싼 농구화 사기
- ④비싼 농구공 사기
- ⑤아빠 오토바이 사 드리키
- ⑥엄마 넓은집 사주기
- ⑦형이 바라는 것 하나 해주기
- ⑧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하기
- ⑨할머니, 할아버지 비싼 안마기 사드리키
- ⑩우리 가족 다~ 안아주기

### ★ 김진희

- ①돈 1000만원 이상 벌어보기
- ②엄마가 마음에 들 때까지 효도하기
- ③엄마한테 밥 한끼 차려주기
- ④맘껏 놀아보기
- ⑤내꿈 이루기
- ⑥영어학원 끊기
- ⑦애들이랑 원하는데 가서 놀아보기
- ⑧부모님이랑 같이 2층집에서 살아보기
- ⑨세계일주 해보기(부모님과 함께)
- ⑩가족 모두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기

### ★ 전연수

- ①세계일주 +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보기
- ②유언장 남기기
- ③직업 얻기
- ④고아원에 기부하기
- ⑤에베레스트산 등정
- ⑥노벨상 받기
- ⑦오바마와 악수하기
- ⑧집 얻기
- ⑨무인도에서 1달 살기
- ⑩북극점과 남극점에 가 보기

### ★ 김민승

- ①틴캐시 10만원
- ②인라인스키 죽을 때까지 타는 것
- ③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 ④우리 가족이랑 세계일주
- ⑤우리 가족 넓은 집 사주기
- ⑥죽고 환생하기
- ⑦게임 한 시간 10분 하기
- ⑧스키장 매일 가기
- ⑨학교 안 가기
- ⑩동판으로 아이언맨 슈트 만들기

### ★ 김하평

- ①결혼해서 아기 낳기
- ②여자 애들과 배낭여행 하기
- ③남자친구와 배낭여행 하기
- ④4.내 꿈을 이루기
- ⑤좋은대학 가기
- ⑥별장을 지어서 그곳에 놀러가기
- ⑦큰집에 마당있고 이층인 집에서 살아보기
- ⑧게임 많이 해보기
- ⑨스마트폰 사기
- ⑩좋은 TV사서 마음대로 보기

## 강마을 특파원 소식

독자 투고

### 암행어사의 칭찬일지 - 김진희

준호-미술시간에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  
 Mr.smith-숙제 안 해온 아이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었음.  
 동민-영어숙제를 열심히 했음.  
 민영-농구를 양심적으로 했음.  
 길샘-수학시간에 수학을 하지 않았음.  
 솔빈-토론을 잘 했음.  
 태운-자탐을 열심히 한다.  
 상민-너무 잘 생겼다.  
 승진-너무 귀엽다.  
 하늘-준호와 내용 같다.

은수,연수-길샘이 3시되면 컴퓨터를 집어넣으라고 하라고 시켰는데, 확실히 했다.  
 민영-호가 놀렸는데도 되받아치지 않고 바로 선생님에게 말했다.  
 승진-농구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애들이 뭐라 했는데도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음.  
 채원,혜려,하평-영어를 열심히 했다.  
 예진-야구를 하다가 비켜달라 했더니 재빨리 비켜주었다.  
 하늘,예진-중간놀이 끝날 때까지 수학을 했다.  
 길샘-PPT를 잘 가르쳐 주셨다.  
 강마을-주말글쓰기를 잘 해왔다.(몇몇 빼고)  
 솔빈-배드민턴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쳤다.  
 교장샘-학교를 잘 이끌어 주시고 있으시다.

상민-풍물을 열심히 했다.  
 준호,솔빈-점심을 많이 나눠줬다.  
 민승-돈을 빌려주었다.  
 길샘-우리가 좋아하는 체험학습을 갔다.  
 교청-교실을 깨끗이 했다.  
 급식-급식을 잘 주었다.  
 급청-급식을 잘 치웠다.

\* 김진희 암행어사 미션 성공!!

★ 5월 22일 수요일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몽촌토성 역사박물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남한산초 견학 시간에 동아일보에서 사진 취재가 나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작은 아이들 15명 정도는 체험학습관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가신다고 하네요. 다른 아이들은 대신 그 시간에 역사관 견학을 하다 20분 후에 함께 모여서 몽촌토성 견학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한산을 내려가는 버스에서 전화가 온다. 취재에 도움이 되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체험학습을 해주겠다고 하신다. 처음에 몽촌토성에 견학 신청을 했을 때 체험학습쪽으로 알아봤었다. 그런데 그 체험학습이 저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강마을은 안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냥 몽촌토성 답사 코스로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공짜로 아이들 절반을 체험학습 시켜주겠다고 하니, 조금의 망설임 없이 동의를 했다. 그러나, 그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2.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관 이야기를 하였다. 일정에 없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절반밖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 모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한다. 모두 손을 드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쪽 사정을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반 모두가 참여할 수가 없어. 원래는 저학년 아이들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키가 작은 아이들만 들어가야 한데. 우리는 키 순서로 들어가야 할 것 같구나."

이러자 키가 큰 나머지 아이들이 풀이 죽는다. 아이들을 데리고 잘 이야기해본다. 그래도 힘이 안 난다. 체험학습 견학을 마치고 모두 모여 몽촌토성의 역사에 대해 영화를 시청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이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나가 몽촌토성을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이들 표정이 밝지 않다. 절반의 아이들이 표정이 어두우니 다른 아이들도 당달이 힘이 빠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몽촌토성을 돌아봤자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다.

"애들아. 잠깐만."

아이들을 멈추게 한다.

"잠깐만 기다려. 가이드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할테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네요. 체험학습을 못한 나머지 아이들이 풀이 죽어있는데, 이 상태로 몽촌토성을 거닐어 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공부가 될텐데, 이래봤자 전혀 교육도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아까 체험학습을 못 간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장에 한 번 다녀오겠어요. 나머지 아이들만 여기서 잠시 설명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지요. 허허"

키가 큰 아이들 나머지를 데리고 잠시 역사관 앞으로 데려간다.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올게. 기다려봐."

역사관 사무실에 들어가 노크를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절반만 체험학습을 경험하고 나머지는 체험학습을 못 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나머지 아이들도 체험학습을 한 번 더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역시 아이들이네요. 어른들은 그런 경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따로 몽촌토성 견학 중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일정을 중지시켰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역사관 견학을 시키는게 낫겠어요."

나머지 아이들을 다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친절하게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잠시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아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돌려주시기로 하신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역사관 주임선생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절반은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나머지는 역사관을 돌고, 그게 끝나면 다시 바꿔서 해준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요."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이렇게 클 줄 말이에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3.

체험학습을 마치고 역사관을 나오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선생님, 몽촌토성 견학은 어떻게 해요? 또 걸어가야 해요?"

"배고파요, 샘~"

시간을 보니 몽촌토성 한 바퀴를 돌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걸어 넓은 잔디밭에 들어가 돛자리를 편다.  
"밥 먹자."

아이들이 벤치 근처에 돛자리를 펴 웅기증기 모여 앉는다.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 허기진 배를 달랜다. 아침에 준비한 내 김밥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나도 아이들도 서로의 도시락을 얻어먹겠다며 돌아다닌다.

휘원이가 캄박 잇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못 했다. 아이들이 휘원에게 한 점씩 내미는데 휘원이 마음이 속상한 지 반질 않는다. 그래도 내가 손에 쥐어주면 먹기 싫은 표정을 해도 꾸역꾸역 받아 먹는다. 그래, 내가 억지로라도 아이들 도시락에서 하나씩 가져다 휘원이 손에 쥐어 준다. 그래도 먹여주는 휘원이가 참 고맙다.

점심 마치고 여유 시간을 갖는데, 돌아보니 휘원이 표정도 밝아졌다. 참 다행이다.

4.

뒷정리를 하고 버스를 타러 간다. 돌아가는 버스는 어느새 시골 벽책 강마을 모습이 가득하다. 아이스크림을 쓰기로 했는데, 주변에 살 만한 곳이 없어 내일로 미루기로 한다.

5.

몽촌토성 견학은 일종의 배움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배움 '안'에 아이들을 억지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운데 배움을 강요할 수가 없었다. 좋은 프로그램과 유익한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몽촌토성까지 힘들게 데려가서는 넓은 몽촌토성을 전부 둘러보지도 못했다. 견학 실패라고 하겠다. 그래도 나는 우리가 부딪힌 그 '장면'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던 장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견학은 실패했으나, 오늘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하고 왔다고 생각하련다.

생각치 못한 내 실수로 일어난 아이들의 삶에, 부디 아이들 마음이 가꾸어졌길 바랄 뿐이다. (2013.5.22.)

2013년 강마을 학급문집

이름 :